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인 간 관련성에서 차이: 양육효능감, 자아개념 그리고 친사회성을 중심으로*

김 수 정¹⁾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곽 금 주²⁾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1, 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되는 변인들 간 관련성을 알아보고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 변인 간 관련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만 7-8세 된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와 각 담임교사 219쌍들이다. 양육효능감은 어머니 보고로 측정했으며, 자아개념과 친사회성은 아동을 일대일로 면접하여 측정했고, 학교적응은 아동의 각 담임교사의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어머니 보고 및 교사 보고 그리고 아동 면접을 통해 나온 자료를 토대로 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 모형 검증 결과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은 학교적응 및 친사회성과 정적인 관련을 보였고, 아동의 자아개념이 친사회성과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친사회성은 아동의 학교적응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집단 간 변인 간 검증 결과, 소득에 상관없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학교적응과 매우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소득이 낮은 가정 아동의 경우,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친사회성과 정적 관련을 보였고, 이런 친사회성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었다. 소득이 높은 가정의 경우, 아동의 자아개념이 친사회성과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주요어 : 학교적응, 양육효능감, 자아개념, 친사회성, 가정 소득

* 본 논문은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11-005-B00011).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 kjkwak@snu.ac.kr)

I. 서론

초등 일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은 아동이 학문적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전이시기의 핵심 영역이 될 수 있다. 이제 막 초등학교를 입학한 아동에게 학교는 가정에서 사회로 첫 발을 내밀게 되는 새로운 장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사회적 맥락이 된다. 즉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은 아동이 여러 환경과의 조화로운 상호작용과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교사나 다른 또래와 같은 의미있는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규칙에 순응하면서 독립된 한 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해준다(류윤석, 1996).

그러나 아동들이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를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협력이나 주장적 행동, 또는 자기조절 등을 실지로 해보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교사 또는 또래 간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경험과 유능성이 결여될 때 종종 학교적응에서 학문적 그리고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곤 한다(Stright, Gallagher, & Kelley, 2008). 특히 초등학교가 시작되는 초기 학령기의 학교 적응은 이후 학령기의 전반적인 적응을 예측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Brody, Murry, Kim, & Brown, 2002; Ladd & Troop-Gordon, 2003). 이처럼 초등학교 초기 시기는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으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가령,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아동의 학교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수정, 1998),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은 낮은 아동에 비해 학교적응 수준이 높았고(고근중, 2006), 학년이 증가될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였다(신진희, 2005).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교적응을 보였으며(김송자, 2005), 부모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김승봉, 2005).

최근 들어 가정의 소득 수준이 아동발달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서 사회과학연구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다(Bornstein & Bradley, 2003). 지난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래 수년간 지속된 경제위기가 가족의 삶에 미친 지대한 영향에 대해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많은 보고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아동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변인 중 하나가 가족의 수입이라는 것이다(Mistry, Biesanz, Chien, Howes, & Benner, 2008).

가정의 소득은 아동 복지를 조성하는 사회적·환경적 자극, 서비스 활동을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므로 전반적인 아동발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adley & Corwyn, 2002). 이런 맥락에서 빈곤이 아동 발달의 전반적인 영역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여러 연구에서 언급했으며(Bradley & Corwyn, 2002; Evans, 2004), 특히 초기 아동기에 경험한 빈곤은 이후 삶에서의 빈곤에 대한 경험보다 아동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에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음이 주장되었다(Duncan, Yeung, Brooks-Gunn, & Smith, 1998).

소득이 전반적인 아동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아동의 교육에 투자할 부모의 능력에서의 차이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즉, 인지적으로 자극을 주는 자료(책, 교육적 장난감, 그리고 미디어)의 마련과 교육적으로 풍부하게 하는 연습과 활동에 관여(책을 읽어주는 것, 박물관과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활동)등이 아동의 인지적 학문적 기능의 예측인이 된다는 것이다(Gershoff, Aber, Raver, & Lennon, 2007).

최근에 소득에 따라 심리적 발달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Piff, Kraus, Cote, Cheng, & Keitner, 2010). Piff와 그의 동료들(2010)의 연구에 의하면 수입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보다 바라던 결과를 이루기 위해 사회적 관여와 타인과의 연합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화되므로 더 친사회적이 된다. 또한 이런 경향은 아동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Stipek & Ryan, 1997).

이런 맥락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 관련성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 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주제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기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연구에서는 초등 1, 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 변인과 아동변인을 중심으로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변인 간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인 경로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 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생물학적 체계이론(Bronfenbrenner & Morris, 1998)에 따르면 아동의 세부 속성들은 시간에 따라 아동이 처해 있는 근접 과정 및 맥락과 상호작용하면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여러 연구들(김수정, 박금주, 2010a; Grolnick & Gurland, 2002; Ryan & Adams, 1995)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적응은 일관된 관련을 보였다. Leidy, Guerra, 그리고 Toro의 연구(2010)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었다. 그런데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어머니들이 느끼는 양육효능감과 정적 관련성을 보이며,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준다(김현미, 2004).

그러므로 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간 관련성에 근거하여 양육효능감이 학교적응과 아동의 자아개념 및 아동의 친사회성과 어떤 관련을 보이는 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4가지 측면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학교적응을 포함한 아동의 심리적 특성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양육효능감은 부모-아동 상호작용 간 일어나는 행동을 예측해 주며,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Coleman & Karraker, 1998). Dorsey등(1999)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들은 아동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양육행동을 보이면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김수정과 박금주(2010b) 연구와 문태형(2002) 연구에서도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그러하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들

보다 사회적 능력 및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포함한 전반적인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으로 관련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특성 중 하나인 친사회성은 타인에게 유익하게 하거나 도움을 주는 특성으로 인간관계의 기초로 간주된다(Knafo & Plomin, 2006a). 아동의 친사회성은 만 6세경에 시작하여 12세경 까지 활발히 발달되어지며(Benenson, Pascoe, & Radmore, 2007), 특히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과 긍정적 관련을 보인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부모와 온정적인 관계를 가진 아동들은 교사에 의해 더욱 친사회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친사회성이 높은 아동들은 낮은 아동들보다 비교적 더 적응적이었다(Clark & Ladd, 2000). 따라서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진 어머니들은 낮은 양육효능감을 가진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친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런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학교적응과도 어떤 관련을 보일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셋째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아개념은 자신을 독특한 개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태도, 행동, 가치 등을 의미한다(Kail, 2008). 몇몇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아개념 발달과 관련을 보인다(김문혜, 강문희, 1999; Eaton, 1997). 가령, 어머니의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거부나 통제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아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Glasgow, Dornbusch, Troyer, Steinberg, & Ritter, 1997). 이처럼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도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어떤 관련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아동의 자아개념은 아동의 친사회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Cauley, & Tyler, 1989). 가령,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도와주고, 공유하고 협조하는 행동을 더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Trimakas (1974)는 더 높은 자아개념을 가진 개인들은 더욱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이현민, 이종구, 2006)에 의하면 자아개념이 높은 아동들은 낮은 아동들보다 비교적 학교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이 친사회성이나 정신 건강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Ybrandt, 2008). 특히 초등학교 입학 시기의 자아개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발달하며, 동시에 아동들은 인지적으로 논리적 조작이 가능해지면서 타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므로 타인에 대한 도움 행동을 더 잘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동의 자아개념은 친사회성에 영향을 주면서 학교적응과도 관련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언급된 연구들에 근거하여 다음에 제시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현 연구에서는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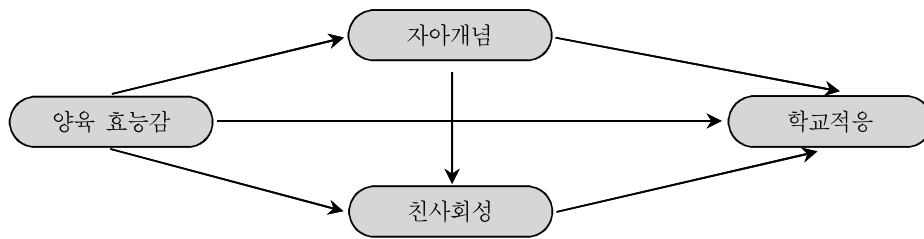


그림 1. 초등 1,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모형

교적응 관련 변인들이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경로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의 2가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초등 1, 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 간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둘째,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 간 경로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 아동들은 한국연구재단의 2008년 중점 연구과제인 [빈곤이 취약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들 중 일부로, 이들은 해당 지역 어린이집 또는 보육소를 통하여 모집되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경우, 해마다 약 5% 정도의 탈락률로 인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추가적으로 모집하였다. CJ 도너스캠프를 통해 14곳의

공부방에서 약 47명의 아동을 추가적으로 모집하였다. 공부방을 통해 각 가정 어머니들에게 연구 설명서를 보낸 다음, 연구에 동의한 가정의 아동들이 참여하였다. 아동의 교사에게도 연구 설명서를 전달한 후 연구에 동의한 교사들이 참여하였다. 연구 대상 아동들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며 모든 측정 과정에 참여한 대상들은 219명의 어머니와 아동 그리고 아동의 각 담임교사이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

어머니용 측정도구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7문항(가령, ‘나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등)으로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각각의 하위영역으로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능력 등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적 합치도인 Cronbach의 α 계수는 .96이고, 하위영역별 α 계수는 .69-.91이며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징 (N=219)

		구분	
		저 소득층아동	중류층아동
아 동		남아	34명 78명
		여아	29명 78명
		평균연령	
		남아	7.4세 7.6세
		여아	7.3세 7.5세
		아버지	40.0세
부 모		어머니	37.8세
		어머니 학력(백분율)	
		중졸	4.9
		고졸	29.6
		전문대졸	16.9
		대졸	43.0
		대졸이상	5.6
		아버지 학력(백분율)	
		중졸	3.5
		고졸	30.3
		전문대졸	12.3
		대졸	42.3
		대졸이상	12.0
		월 소득(백분율)	
		100만원 미만	5.9
		100-200만원 미만	13.2
		200-300만원 미만	19.5
		300-400만원 미만	19.1
		400만원 이상	42.3

교사용 측정도구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은 지성애와 정대현(2006)이 개발한 척도로, 아동의 각 답임

표 2. 측정변인별 문항 수와 신뢰도

			문항 수	Cronbach's α
어 머 니	양육 효능감	전반적양육	11	.91
		건강한양육	7	.76
		의사소통	9	.84
		학습지도	6	.86
		훈육능력	4	.69
		전체	37	.96
아 동	자아 개념	신체외모	6	.88
		친구관계	7	.83
		운동능력	7	.81
		부모관계	8	.82
		수학, 언어	16	.87
		전체	44	.93
	친사 회성	개인정서조절	5	.43
		학교적응	5	.48
		전체	15	.62
교 사	학교 적응	학교생활	11	.94
		학업수행	11	.94
		또래적응	8	.94
		교사적응	5	.84
		전체	35	.97

교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총 35문항(가령,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하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등)으로 5점 척도로 평가된다. 신학기 시작 후, 3-4개월 후 각 답임 교사에게 질문지를 전달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했다.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학교생활적응, 학업수

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Cronbach의 α 계수는 .97이며 하위영역별 α 계수는 .84-.94로 표 2에 제시하였다.

아동용 측정도구

친사회성. 아동의 친사회성은 이원영, 박찬옥 및 노영희(1993)가 McGinnis와 Goldstein (1990)의 'Skill Situations Measures'를 수정 변안한 15문항 중, 10문항을 사용했다. 이 척도는 글 읽기가 능숙하지 못한 학령 전 아동들이나 초등 1, 2학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그림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정서조절(가령, '친구가 나보고 '돼지야' 하고 놀렸어,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과 학교적응('선생님이 나보고 교실가운데 조용히 앉으라고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이다. 친사회적 행동 평가는 이원영 등(1993)의 연구에서 사용한 기준을 가지고 친사회적 반응, 무 관련 반응, 무반응으로 분류하여 친사회적 반응에만 1점을 부과하고 나머지 반응들은 0점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의 α 계수는 .62이며, 하위영역별 α 계수는 .43-.48이다.

자아개념. 아동의 자아개념은 고진영(2004)이 개발한 초등학생용 자아개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4문항(가령, 나는 잘 생겼다, 나는 친구가 많다, 나는 수학이 쉽다 등)으로 5점 척도로 평가된다.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영역은 신체 외모, 친구 관계, 운동 능력, 부모관계, 수학 영역, 그리고 언어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과 언어에 대한 자아개념은 학업에 관련된 영역이므로 이 두

영역을 하나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3이며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81-.88이다.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 1, 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이 연구모형에 따라 관련성을 보이는가와 소득에 따라 학교 적응 관련 변인 간 경로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동의 가정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어머니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설문지가 발송되었고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후 반송하였다.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아개념은 2010년 7월부터 10월에 걸쳐 본 실험실에 와서 면접을 통해 측정하였다. 아동의 면접 시간은 약 30-40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연구자는 아동에게 문항을 읽어준 후, 아동의 대답을 기록했다. 아동들은 본 실험실 방문이 반복되면서 대체적으로 친근하고 즐겁게 면접에 임했다.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설문지는 아동이 입학 후 또는 2학년이 된지 4개월이 지난 후, 아동의 각 학교 담임교사에게 설문에 대한 설명서와 같이 발송되었다.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 상태를 관찰한 후 담임교사들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 반송하였다.

총 350명의 설문지가 발송되었는데 이 중, 어머니 질문지는 281부, 담임교사 질문지는 219부가 회수되었고, 아동은 241명이 면접에 참여하였다. 모든 과정에 참여한 대상들은 219쌍의 어머니와 아동과 아동의 각 담임교사들이다. 각각의 질문지 회수율은 약 80%와 63%

이다. 연구 대상이 초등 1, 2학년 아동이란 점을 고려하여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각각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료 손실이 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 수입이 낮은 아동들의 면접 참여 및 질문지 회수율이 저조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 대상은 219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실제 수입이 216만원 이하 일 때 저소득층으로 지원혜택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변인 간 관련성에서의 차이를 보고자 했으므로, 보건복지부 기준을 참고하여 대략 210만원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 중, 210만원 미만인 가정은 저소득층 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63명이며, 210만원 이상인 가정은 중류층 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156명이다. 연구에 참여한 350명중 중류층 가정은 270명이며, 저소득층 가정은 180명이다. 따라서 최종 탈락율은 저소득층의 경우 65%이며, 중류층의 경우 약 42%이다.

첫째로,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편차를 산출하였고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로, 그림 1의 이론적 인과 모형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평가하였다. 셋째로 소득수준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후, 각 집단 간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 경로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간편하게 모형을 평가할 수 있

는 적합도 지수로서 TLI, CFI, 그리고 RMSEA를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적합도 지수들의 평가기준은 TLI와 CFI는 .90 이상일 때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문수백, 2009). 그리고 RMSEA는 .05 이하이면 양호한 것으로 .05보다 크고 .08미만이면 적절한 적합도로 평가된다(Brown & Cudeck, 1993). 자료 분석은 SPSS 17.0 과 AMOS 7.0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양육효능감, 아동의 자아개념, 친사회성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

먼저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들의 값은 왜도와 첨도에서 적절한 값을 나타내어서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측정변인 간 상관을 보면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들이 학교적응의 하위영역들과 친사회성의 하위영역들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아동의 자아개념 중, 운동능력 자아개념이 건강한 양육효능감과 그리고 학습지도 양육효능감이 수학언어 자아개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아개념의 하위영역 중, 친구관계 자아개념과 수학언어 자아개념은 학교적응 전 하위영역들과 친사회성의 하위영역들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친사회성의 하위영역들은 학교적응 중, 교사적응 영역만을 제외하고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3. 변수들 하위범주간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N=219)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u>양육효능감</u>																
1. 전반적양육	1															
2. 건강한양육	.74***	1														
3. 의사소통양육	.74***	.67***	1													
4. 학습지도양육	.78***	.64***	.69***	1												
5. 훈육능력	.63***	.61***	.63***	.64***	1											
<u>자아개념</u>																
6. 신체외모	.03	.09	.01	.07	.08	1										
7. 친구관계	.08	.06	.04	.07	.06	.58**	1									
8. 운동능력	.08	.17**	.07	.07	.02	.48***	.47***	1								
9. 부모관계	.05	.04	.03	.08	.03	.46***	.49***	.39***	1							
10. 수학, 언어	.10	.07	.05	.16*	.09	.51***	.46***	.45***	.44***	1						
<u>친사회성</u>																
11. 개인정서조절	.14*	.07	.12	.14*	.12	.14*	.19**	.16*	.22***	.15*	1					
12. 학교적응	.18**	.14*	.19**	.21**	.22**	.12	.16*	.13	.21**	.21**	.45**	1				
<u>학교적응</u>																
13. 학교생활	.31***	.26***	.24***	.35***	.31***	.07	.18**	.03	.13	.16*	.33***	.30***	1			
14. 학업수행	.40***	.34***	.37***	.45***	.33***	.17*	.25***	.10	.12	.23***	.22**	.22***	.73***	1		
15. 또래적응	.26***	.26***	.24***	.28***	.25***	.11	.26***	.04	.12	.15*	.21**	.27***	.69***	.73***	1	
16. 교사적응	.26***	.28***	.26***	.27***	.27***	.13	.19**	.14*	.09	.19**	-.02	.10	.43***	.65***	.57***	1
평균	38.99	27.71	34.68	22.44	15.67	17.78	23.78	25.62	30.84	53.96	3.64	4.37	42.81	41.15	29.23	19.43
표준편차	6.14	3.39	4.36	3.76	2.00	5.79	6.24	6.13	6.37	12.61	1.09	.93	9.49	9.54	7.19	3.86
최소값	13.00	13.00	18.00	6.00	8.00	6.00	7.00	8.00	8.00	16.00	.00	.00	14.00	12.00	9.00	8.00
최대값	52.00	35.00	45.00	30.00	20.00	30.00	35.00	35.00	40.00	79.00	5.00	5.00	55.00	55.00	14.00	25.00
왜도	-.50	-.45	-.53	-.58	-.27	-.02	-.38	-.60	-.81	-.34	-.75	-1.88	-.76	-.59	-.49	-.45
첨도	1.47	1.51	1.50	1.50	1.00	-.48	-.39	.03	.65	-.07	.38	4.36	.00	-.10	-.32	-.26

* $p < .05$, ** $p < .01$, *** $p < .001$

2. 구조 모형의 적합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이론 변인들과 측정변인들의 관계가 적절한지를 적합도 지수를 통해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3에서

보면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이 적절한 값을 나타내어 정상분포에 대한 가정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체모형을 포화모형으로 구성하여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측정 모형을 검증한 결과 각 측정 변인들의 경로계수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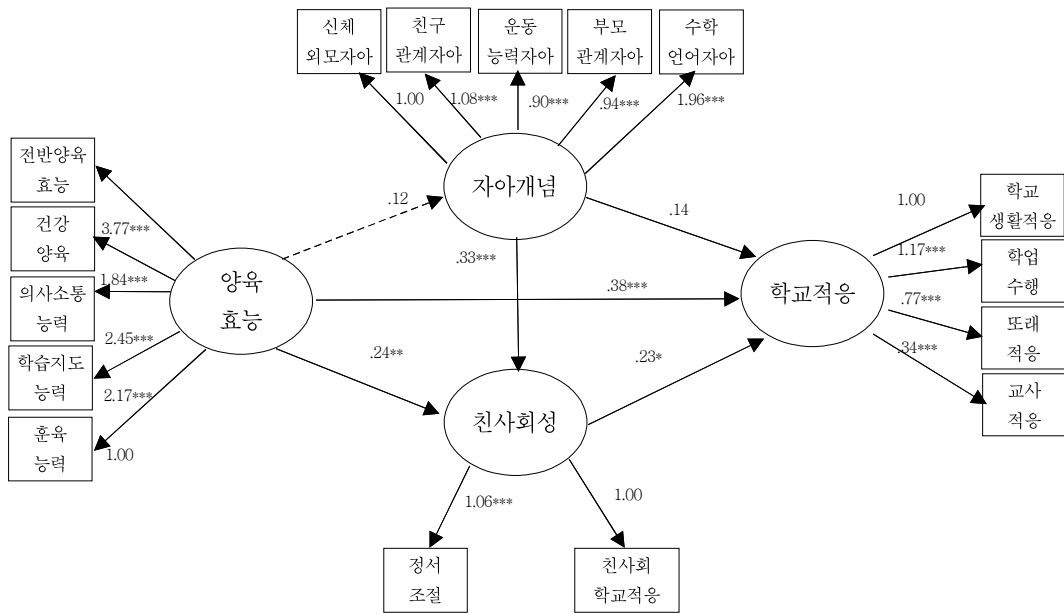


그림 2. 초등 1, 2학년 학교적응 관련변인에 대한 구조모형

반적으로 유의했고,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TLI가 .96, CFI가 .97, RMSEA가 .048으로 나타나서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의 측정변인들은 이론 변인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보면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친사

회성($\beta=.239$, $p<.01$)과 학교적응($\beta=.383$, $p<.001$)과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며, 또한 친사회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학교적응에 관련을 보였다. 아동의 자아개념은 아동의 친사회성에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으며($\beta=.329$, $p<.001$), 아동의 친사회성은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234$, $p<.05$).

표 4. 전체 집단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양육효능감 → 자아개념	.339	.115	.229	1.476
양육효능감 → 친사회성	.107	.239	.040	2.669**
자아개념 → 친사회성	.049	.326	.015	3.328***
자아개념 → 학교적응	.243	.140	.135	1.804
친사회적행동 → 학교적응	2.686	.234	1.141	2.354*
양육효능감 → 학교적응	1.961	.383	.388	5.058***

* $p < .05$, ** $p < .01$, *** $p < .001$

3. 소득에 따른 학교적응 모형에서의 차이 검증

소득별 집단에 따른 모형에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이 시행되었다. 우선,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 변인의 구조에서 집단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형태 동일성 검증이 실시되었으며 잠재 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의 기여도에 따른 집단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동일성 검증이 실시되었다. 또한 모형에 포함된 경로계수 각각의 크기에 집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로계수비교 분석이 실시되었다. 표 5에서 보면 형태 동일성검증의 적합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며 χ^2 값을 비롯한 형태 동일성 검증의 적합도 수준과 측정 동일성 검증의 적합도 값의 변화량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집단 간 측정동일성도 성립된다. 따라

서 소득에 따른 집단 간 요인구조나 요인부하량은 동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측정 동일성 검증과 경로 동일성 검증의 적합도 값의 변화량이 크지 않으므로 두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측정 동일성 검증과 경로 동일성 검증의 χ^2 값의 변화량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모형의 경로에서 부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에서처럼 양육효능감에서 친사회성의 경로, 자아개념에서 학교적응의 경로, 그리고 친사회성에서 학교적응의 경로에서 집단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에 따라 아동의 학교적응 변인 간 경로에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득이 210만원 이상소득 집단과 210만원 미만소득 집단 각각의 학교적응에 대한 측정 모형을 구

표 5.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검증모형	χ^2	df	p	$\Delta\chi^2$	Δdf	p	CFI	ΔCFI	RMSEA	$\Delta RMSEA$
형태동질성	257.752	196	.002	-	-	-	.962		.038	
측정동질성	275.194	208	.001	17.442	12	.134	.958	.004	.039	-.001
경로동질성	291.739	214	.000	16.545	6	.011	.952	.006	.041	-.002

표 6. 측정동질성 모형과 경로동질성 모형의 경로비교

Model	Δdf	$\Delta\chi^2$	ΔP
양육효능감 -> 자아개념	1	.021	.885
양육효능감 -> 학교적응	1	.384	.535
양육효능감 -> 친사회성	1	4.451	.035
자아개념 -> 친사회성	1	.100	.752
자아개념 -> 학교적응	1	5.003	.025
친사회행동 -> 학교적응	1	7.153	.007

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중류층 집단 아동의 학교적응 모형에 대한 구조 검증

210만원 이상소득 가정 아동의 학교적응 변인에 대한 측정 모형을 검증한 결과가 그림 3

에 제시되었다. 각 측정 변인들의 경로계수가 부분적으로 유의했고,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TLI가 .97, CFI가 .98, RMSEA가 .039로 나타나서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표 7에서 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학교적응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으나($\beta=.283$, $p<.01$),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아개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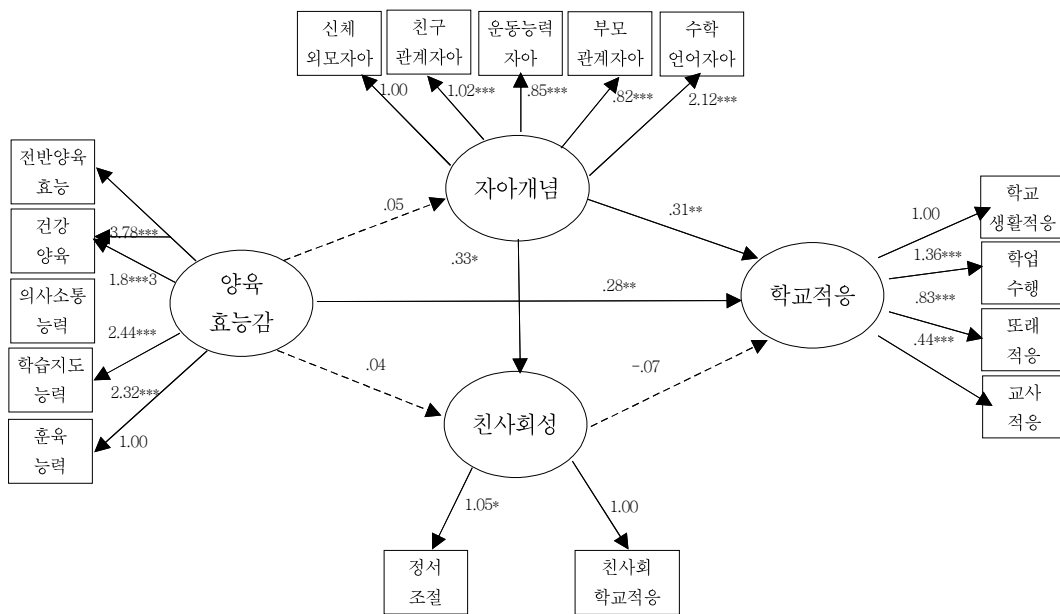


그림 3. 중류층 집단 아동의 학교적응 변인에 대한 구조모형

표 7. 중류층 집단 아동의 구조모형 경로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양육효능감 → 자아개념	.190	.054	.327	.582
양육효능감 → 친사회성	.017	.042	.048	.362
자아개념 → 친사회성	.039	.333	.017	2.319*
자아개념 → 학교적응	.416	.312	.138	3.007**
친사회성 → 학교적응	-.794	-.070	.1382	-.575
양육효능감 → 학교적응	1.330	.283	.425	3.129**

* $p < .05$, ** $p < .01$

는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아동의 자아개념은 아동의 친사회성($\beta=.333, p<.05$)과 학교적응($\beta=.312, p<.01$)에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그러나 친사회성은 학교적응과 아무런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저소득층 집단 아동의 학교적응 모형에 대한 구조 검증

201만원 미만 가정 아동의 학교적응 변인에 대한 측정 모형을 검증한 결과가 그림 4에 제시되었다. 각 측정 변인들의 경로계수가 부분적으로 유의했고,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TLI가 .92, CFI가 .94, RMSEA가 .08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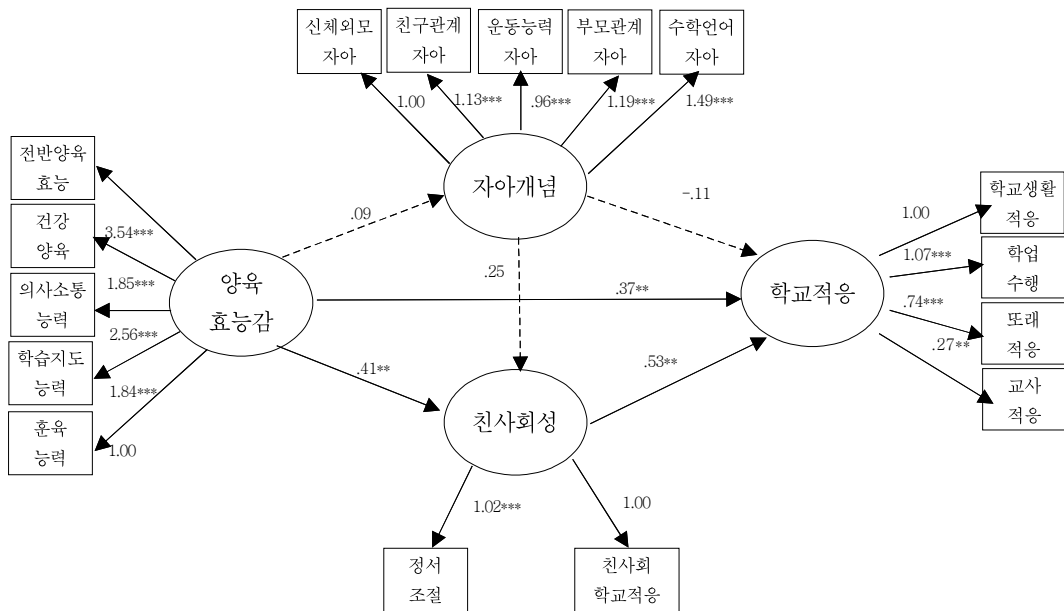


그림 4. 저소득층 집단 아동의 학교적응변인에 대한 구조모형

표 8. 저소득층 집단 아동의 구조모형 경로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양육효능감 → 자아개념	.197	.091	.314	.629
양육효능감 → 친사회성	.187	.405	.068	2.754**
자아개념 → 친사회성	.054	.254	.033	1.631
자아개념 → 학교적응	-.250	-.107	.287	-.873
친사회성 → 학교적응	5.840	.533	1.995	2.927**
양육효능감 → 학교적응	1.873	.369	.662	2.830**

* $p < .05$, ** $p < .01$

나서 적절한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표 8에서 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학교적응과 정적인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으며($\beta = .369, p < .01$),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도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beta = .405, p < .01$). 아동의 자아개념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학교적응에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의 경우, 친사회성이 학교적응과 매우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beta = .533,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동의 자아개념, 그리고 아동의 친사회성이 학교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가를 알아보고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교적응에 이런 변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 가를 알아보았다.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동의 자아개념 및 친사회성이 학교 적응에 주는 영향

첫째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친사회성과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을 나타냈으며, 아동의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에서는 부분적인 상관은 보였으나, 전체적인 변인 간 관련성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들은 아동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양육행동을 보이면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Dorsey 등(1999)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Coleman과 Karraker(1998)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긍정적 양육과 관련을 보인다는 연구(Costigan, & Koryzma, 2011) 결과와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친사회성 간 정적 관련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와 온정적인 관계를 가질수록 아동의 친사회성이 교사에 의해 더 높게 평가되었다는 연구결과(Clark & Ladd, 2000)와 부모의 긍정적 훈육이 아동의 친사회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결과(Knafo & Plomin, 2006b)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초등 1, 2학년 아동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학교적응과 친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적응 발달에 긍정적인 요인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 2에서처럼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자아개념과는 특별히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초등 1, 2학년이란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가령, 이 시기 아동은 주로 행위나 사물에 근거한 구체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로써 표현될 때만,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양육효능감이란 양육에 대한 어머니가 가지는 전반적인 신념이나 생각으로 양육행동과 정적 관련을 보이지만(김현미, 2004), 그런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내적 가치가 초등 1, 2학년 아동의 자아개념에 직접

적으로 관련을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아동의 자아개념은 친사회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이 친사회성이나 정신 건강 등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Ybrandt, 2008)와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아동이 그러하지 않은 아동보다 도와주고, 공유하고 협조하는 행동을 더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는 연구결과(Cauley, & Tyler, 1989)와 같은 맥락이다.

셋째로 아동의 친사회성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친사회성이 높은 아동들은 낮은 아동들보다 비교적 더 적응적이라는 연구결과(Clark & Ladd, 2000)와 같은 맥락이다. 이런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시기부터 아동이 친사회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아동의 학교적응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적응에도 유익할 수 있음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특히 친사회성은 초등학교 입학시기부터 활발히 발달되어지는 심리적 특성이므로(Benenson, et al., 2007), 학교와 가정에서는 아동의 이러한 발달 단계에 적절한 교육과 양육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 경로에서 차이

중류층 아동의 경우, 학교 적응 관련 변인 간 경로는 전체 모형에서의 경로와 부분적인 일치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은 학교적응을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결과는 위에서 언급된 선행 연구(Dorsey et al., 1999)와 일치되는 경향이다. 아동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친사회

성도 더 높게 나타났으며($\beta=.039, p<.05$), 학교적응도 더 잘할 수 있었다($\beta=.416, p<.01$). 그러나 전체모형과는 달리 친사회성은 학교적응과 아무런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아동의 자아개념이 학교적응과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관련을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친사회성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높은 계층의 사람들은 타인과의 협조적 교류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독립, 향상된 개인적 통제, 그리고 사적 선택의 자유 등과 같은 내적 특성(Snibbe & Markus, 2005; Stephens, Markus, & Townsend, 2007)등에 더 동기화된다. 따라서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의 어머니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과의 협조보다는 개인의 자유 및 독창성 등의 사적 특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런 어머니의 생각은 자녀의 심리적 발달 특성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령, 양육효능감의 한 하위영역 중에는 ‘자녀에게 건강한 생각을 갖도록 지도하기’가 있다.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에게 우호적 또는 협조적이 되기보다는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친사회성과 특별한 관련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의 아동의 경우,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친사회성과 학교적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연스런 관찰연구에서도 경제적으로 상류 계층의 아동들은 저소득층 아동보다 타인에 대해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행동을 덜 보였다(Stipek & Ryan, 1997). 이런 맥락에서 보면 소득 수준

이 높은 가정의 아동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과의 연합하는 방식보다는 개인적 특성에 더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친사회성보다는 자아개념이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아동은 자신의 외모나 학업 수행 능력 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양육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정적 관련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경우, 양육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매우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친사회성을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중류층 아동의 경우와 달리, 아동의 자아개념은 아동의 친사회성이나 학교적응과 아무런 관련을 보이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친사회성과 매우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으며, 아동의 친사회성은 학교적응과 매우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다.

이런 결과들은 사회계층이 어떻게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를 조사한 Piff 등(2010)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설명해 볼 수 있다. 가령,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 사람들은 바라던 결과를 이루기 위해 타인에 의존하고 개인적 통제를 덜 경험하므로(Argyle, 1994; Domhoff, 1998), 사회적 관여와 타인과 연합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화된다(Kraus & Keltner, 2009). 따라서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 어머니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협조하는 행동 양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런 어머니의 행동 양식은 자녀 양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자녀에게 건강한 생각을 갖도록 지

도할 때, 타인과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특성보다는 협조적이 되도록 강조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양육효능감이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저소득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타인과 잘 협조하고 연합하는 적응 방식을 학습하도록 교육 받을 수 있으므로, 아동의 친사회성이 학교적응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사점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초등 1, 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이런 결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초등 저학년 아동들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제안해 볼 수 있으며, 저학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머니들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중류층 가정의 경우, 아동의 자아개념이 학교적응과 정적 관련을 보인 반면,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아동의 친사회성이 학교적응과 정적 관련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저학년부터 학교적응에 있어서 심리적 특성에서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즉 초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학교적응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적응에 필요한 심리적 특성이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발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 연구 결과를 통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초등 저학년부터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자녀에게 강조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매우 영향력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이 시기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동 변인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현 연구 결과는 초등 저 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울러 아동, 어머니, 그리고 아동의 담임교사를 통한 다각적인 측면으로 모아진 자료를 분석하여 초등 1, 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었다는 것에 현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 연구는 아동의 친사회성 하위영역의 신뢰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에도 변인 간 분석에 사용한 한계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좀 더 적절한 친사회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저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설계를 포함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총체적인 학교적응 관련 변인 탐색과 연계성을 종단적으로 접근하여 학교적응 뿐 아니라 전반적인 아동의 사회 적응을 위한 시사점들이 제안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고근중 (2006).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충북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진영 (2004). 발달단계별 자아개념 측정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문혜, 강문희 (1999). 아동의 자아존중감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아동학회지, 20(4), 195-211.

김송자 (2005).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수정, 광금주 (2010a). 초등 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단기·종단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9-37.

김수정, 광금주 (2010b). 초등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I. 인간발달연구, 17(4), 89-109.

김승봉 (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동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현미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류윤석 (1996). 초등학교 도시전입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학지사.

문태형 (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49-63.

박수정 (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행동에 관한 연구-아동의 지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신진희 (2005).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원영, 박찬옥, 노영희 (1993). 유아의 사회성 발달프로그램 개발연구. 중앙대학교 연구 논문.
- 이현민, 이종구 (2006).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 발달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논문집, 314-315.
- 지성애, 정대현 (2006). 초등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 최형성, 정옥분 (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6.
- Argyle, M. (1994). *The Psychology of social class*. London, England: Routledge.
- Benenson, J. F., Pascoe, J., & Radmore, N. (2007). Children's altruistic behavior in the dictator game. *Evolution and Behavior*, 28, 168-175.
- Bornstein, M. H., & Bradley, R. H. (2003).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Mahwah, NJ: Erlbaum.
- Bradley, R. H., & Corwyn, R. F.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371-399.
- Brody, G. H., Murry, V. M., Kim, S., & Brown, A. C. (2002). Longitudinal pathways to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African American children living in rural single-parent households. *Child Development*, 73(5), 1505-1516.
- Bronfenbrenner, U., & Morris, P. (1998). The ecology of developmental processes. In W. Damon (Series Ed.) & R. M. Lerner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human development* (5th ed., pp.993-1028). New York: Wiley.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pp.136-162). Beverly Hills, CA: Sage.
- Cauley, K. & Tyler B. (1989). The relationship of self-concept to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 51-60.
- Clark, K. E., & Ladd, G. W. (2000). Connectedness and autonomy support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Links to children's socioemotional ori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6, 485-498.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stigan, C. L., & Koryzma, C. M. (2011).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among immigrant parents: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183-196.
- Domhoff, G. W. (1998). *Who rules America*. Mountain View, CA: Mayfield.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 and Family*, 61, 295-305.
- Duncan, G. J., Yeung, W. J., Brooks-Gunn, J., & Smith, J. R. (1998). How much does childhood poverty affect the life chances of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406-423.
- Eaton, M. (1997). Positive discipline: Fostering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53(6), 43-46.
- Evans, G. W. (2004). The environment of childhood poverty. *American Psychology*, 59, 77-92.
- Gershoff, E. T., Aber, J. L., Raver, C. C., & Lennon, M. C. (2007). Income is not enough: Incorporating material hardship into models of income associations with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8, 70-95.
- Glasgow, K. L., Dornbusch, S. M., Troyer, L., Steinberg, L. R., & Ritter, P. L. (1997). Parenting styles, adolescents' attributions, and educational outcomes in nine heterogeneous high school. *Child Development*, 68(3), 507-529.
- Grolnick, W. S., & Gurland, S. T. (2002). Mothering: Retrospect and prospect. In J. P. McHale & W. S. Grolnick (Eds.), *Retrospect and prospect in the psychological study of families* (pp.5-33). Mahwah, NJ: Erlbaum.
- Kail, R. V. (2008). 아동과 발달. 권민균, 김정민, 최형성(역). 시그마프레스. (원본발간 일, 2007).
- Knafo, A. & Plomin, R. (2006a). Prosocial behavior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stability and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42(5), 771-786.
- Knafo, A. & Plomin, R. (2006b). Parental discipline and affection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Genetic and environmental link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147-164.
- Kraus, M. W., & Keltner, D. (2009). Signs of socioeconomic status: A thin-slicing approach. *Psychological Science*, 20, 99-106.
- Ladd, G. W., & Troop-Gordon, W. (2003). The role of chronic peer difficulti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Child Development*, 74(5), 1344-1367.
- Leidy, M. S., Guerra, N. G., & Toro, R. I. (2010). The impact of positive parenting, family cohesion, and child social competence among immigrant Latino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3), 252-260.
- McGinnis, E., & Goldstein, A. P. (1990). *Skillstreaming in early childhood: Teaching prosocial skills to the preschool and kindergarten child*. Champaign, IL: Research Press.
- Mistry, R. S., Biesanz, J. C., Chien, N., Howes, C., & Benner, A. D. (2008). Socioeconomic status, parental investments, and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outcomes of low-income children from immigrant and native household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3, 193-212.
- Piff, P. K., Kraus, M. W., Cote, S., Cheng, B. H., & Keltner, D. (2010). Having less, giving

- more: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5), 771-784.
- Ryan, B. A., & Adams, G. R. (1995). The family-school relationship model. In B. A. Ryan, G. R. Adams (Eds.), *The family-school connec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3-28). Thousand Oaks, CA: Sage.
- Snibbe, A. C., & Markus, H. R. (2005).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Educational attainment, agency, and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703-720.
- Stephens, N. M., Markus, H. R., & Townsend, S. M. (2007). Choice as an act of meaning: The case of social cla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814-830.
- Stipek, D. J., & Ryan, R. H. (1997). Economically disadvantaged preschoolers: Ready to learn but further to go. *Developmental Psychology*, 92, 56-66.
- Stright, A. D., Gallagher, C. G., & Kelley, K. (2008). Infant temperament moderates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in early childhood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irst grade. *Child Development*, 79(1), 186-200.
- Trimakas, K. (1974). Self concept and altruism in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29(4), 434-439.
- Ybrandt, H. (2008). The relation between self-concept and social function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31, 1-16.
- 1 차원고접수 : 2012. 3. 30.
수정원고접수 : 2012. 8. 16.
최종게재결정 : 2012. 8. 30.

Exploring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Related to
the School Adjustment of Grade 1 and 2 according to Parental Income:
Parenting Efficacy, Self Concepts, and Prosocial Behaviors

Kim, Suchung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wak, Keumjoo

Dep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variables relevant to the school adjustment of school children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of the variables according to parental income levels. The subjects comprised 219 triplets of children, their mothers, and classroom teachers. Parenting efficacy was measured using mothers' reports. The children's self concepts and prosocial behaviors were measured by means of direct interview and school adjustment was measured via teachers' report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 testing were conducted, based on these repor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esting, parenting efficacy was found to be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prosocial behavior, and children's self concept was positively related to prosocial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Additionally, the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was found to be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esting by parental income levels revealed that mothers' parenting efficacy was related to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regardless of parental income level. However, in the case of low-income children, parenting efficacy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prosocial behavior, and these prosocial behaviors affected school adjustment. In the case of children from high-income families, their self-concept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rosocial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Key words : school adjustment, parenting efficacy, self-concept, prosocial behavior, parent's incomes